

초등학교 무용예술교육의 실제 수업현황

- 무용예술강사 시점 -

주최 : 한국스포츠교육학회 교육세미나
발표자 : 강해성 (무용예술강사)
일시 : 2018. 11. 10

목차

1. 연구의 발제
2. 초등학교 무용 예술 교육의 현황 및 가치정향
 - 1) 현황
 - 2) 목표 및 구성
 - 3) 학습 내용
3. 초등학교 무용 예술 교육과 예술강사의 관계성
 - 1) 학교 및 담당교사와 예술강사
 - 2) 담임교사와 예술강사
 - 3) 학습자와 예술강사
4. 결론

참고 자료 및 출처

1. 연구의 발제

최근 무용(춤)에 대한 범위가 확장되면서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매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춤 문화를 접하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무용 예술 분야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실 상황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승되어온 무용이라고 말하는 예술의 영역과 지금의 무용예술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이러한 정의 내림은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고, 교육되어지고 있는가?

“무용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K-pop댄스가 무용인줄 아는 학생들도 있고, 발레가 무용이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고 맞는 것인지 대하여 명확하게 결론내릴 수는 없다. 무용예술의 영역 확장은 지금의 사회가 갖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아야하며, ‘옳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억압적으로 가용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 연구자의 입장으로는 무용예술의 보편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긍정적인 효과로 보아야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학교교육 내에서의 입장은 예술 전문가의 측면에서 바라본 시각과 조금 다르다. 공교육인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정향과 목표, 특성을 기본 틀로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무용예술 교육전문가로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무용 예술강사로서의 교육적 사명과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확한 지식과 확고한 소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 내에서 무용예술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가치를 기리기 위해 교육자로서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고, 학교와 교사와 학생 그리고 무용 강사와의 연계성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실례를 바탕으로 일부 예술강사의 인터뷰를 토대로 발제를 하였기에 학교 정규 수업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용 기본 교과를 중심으로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및 토요 동아리 활동 수업 등을 배제함에 제한점이 있다.

2. 초등학교 무용 예술 교육의 현황 및 가치정향

1) 현황

현 2018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8,344개의 학교에 5,282명의 예술강사가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해 각 지역운영기관을 통해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학교 예술 교육 지원 총 8개 분야를 구성하여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과

목을 학교에 전문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수업 지원을 하고 있다.

수업유형으로는 기본교과에 국악(음악), 연극(국어), 무용(체육, 즐거운 생활)이 있고, 선택교과로는 기본 교과 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교과목이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인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이 있다. 그리고 토요일동아리 수업,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운영 기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 수업은 해당분야 예술전문성과 학교의 교육과정별 커리큘럼을 토대로 학교 담당교사와의 협력 하에 예술강사가 연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한다. 특히 ‘관련교과(기본교과, 선택교과)’의 경우 해당분야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 교사-예술강사의 협력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¹⁾ 이는 학교에서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듯이 예술교과 또한 무궁무진한 수업 방식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강사들의 역할과 학교에서 담당교사, 담임교사와의 연계가 어느 정도로 교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문화예술 교육의 질은 달라지고 각 학교들의 수업은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2) 목표 및 구성

무용 예술은 학생들이 가지는 내면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시기별로 나이에 맞는 감수성을 길러주어 개개인의 창의력과 예술적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한다는 가치 정향을 가지고 있다. 공교육 안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경험 할 수 없었던 무용이라는 예술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이해하며 교우들과의 관계성과 나아가 사회성을 길러내어 문화적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009년 교육개정안의 주요 변화인 스팀교육(STEAM)의 강조는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을 가리키는 말로 ‘융합교육’이라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무용 교과에서도 이를 반영한다. 교과간의 경계보다는 연계를 강조하여 다방면의 통합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해결하는 힘을 길러준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학년 운영과 난이도별로 분류된 교육내용 등 자율적인 교사들의 역량을 활성화하여 강화하려는 변화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무용예술교육 또한 학제별, 학년별 수업시수,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서의 바뀐 내용에 맞게 새롭게 콘텐츠 개발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정안의 총괄적인 무용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신체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 무용경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확대시킨다.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arte.or.kr/index.do>

-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상호존중과 다양성을 이해한다.
- 무용을 통해 타인, 사물, 환경들과 새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 문화, 예술 매체로서의 무용을 이해하고 경험한다.
- 무용의 표현방식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움직임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²⁾

이는 무용을 체험, 탐구, 확장의 과정을 통해 말하고, 쓰고, 읽는 종합적인 개발을 한다는 것에 무용예술교육의 목표를 둔다는 것이다. 무용교육표준의 교과 구성으로는 춤추기(실행), 춤 만들기(창작), 춤 읽기(감상), 춤 나누기(소통)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내용과 방법론을 제시하여 체험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소통하는 발전적인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체험에 중점을 두는 초등무용교육은 무용과 타 교과목, 타 예술 장르간, 타 영역 및 생활과의 통합된 무용 수업을 중점 목표로 두며, 문화, 놀이, 즉흥적인 무용 수업 내용의 이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구성한다.

-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통해 신체 언어를 체험하고 이해한다.
- 시각, 청각, 움직임 등의 통합적 표현을 통해 다양한 감각을 발달시킨다.
- 움직임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인지력을 개발한다.
- 문화로서의 무용을 체험함으로써 무용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³⁾

3) 학습 내용

201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제시한 학교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무용 교육의 교안 영역은 종합적으로 1-2학년은 예술 통합, 3-6학년은 학년 군으로 나뉘어 무용 탐색, 무용 창작, 한국 민속무용, 외국 민속무용 영역이 있으며, 첫 번째, 예술 통합 영역은 현행 통합 교과와의 연계성을 위해 공통적 소재를 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교과목과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몸을 활용한 움직임 활동에 중점을 두어 자주적이고 흥미로운 학습이 되도록 하였으며, 교사들로 하여금 현행 통합교과와 연계하여 교과 편성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두 번째, 3-4학년의 경우 창작무용을 만들고 발표하기가 주를 이루어 있으므로 기본적인 무용의 개념과 감상법을 다루고 있다. 또한 5-6학년은 우리나라 민속

2) 초등학교 무용교수- 학습자료(2011), p. 7.

3) 초등학교 무용교수- 학습자료(2011), p. 8-9.

무용과 외국 민속무용의 특징과 종류 등에 대해 논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해보고자 한다. 세 번째, 3학년 움직임 표현에서 기본 움직임 이해 및 탐색을 위한 활동위주로 구성되어 움직임 요소를 적용하는 활동이 많으므로 관련 내용이 많고, 4학년 리듬 표현에서 다양한 리듬을 만들고 표현과 연결하는 활동을 제시하며, 리듬체조 도구들을 이용하여 리듬을 만들고 표현과 연결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또한 6학년은 창작 표현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학년 예술통합 영역에서는 우리 몸짓, 땅 밟기, 하늘 손짓, 전통으로 세분화하여 신체모양, 신체인식, 신체 탐색, 관계성, 관찰 표현, 문장표현, 형태 탐구, 경로, 전래놀이, 리듬, 상상표현, 공간성, 기호, 민속, 사회성, 촉감표현, 소도구, 다문화이해로 나누는 학습개념으로 40차시를 기본으로 한다. 3-4학년 무용 탐색 영역에서는 무용의 개념, 한국무용의 특성, 발레와 현대무용의 특성, 대중무용의 특성, 무용 감상법, 무용의 역할을 6차시로 나누어 학습개념으로 하고, 무용창작 영역으로는 신체 인식과 기술, 움직임 요소, 상상표현 영역으로 나누어 16차시를 기본으로 한다. 한국 민속무용 영역으로는 노래와 춤, 생활과 춤, 자연과 춤의 학습 영역으로 나뉘어 10차시로 구성한다. 외국 민속무용으로는 10차시를 기본으로 하여 라인댄스와 여러 나라의 다양한 민속 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6학년의 무용 탐색영역으로는 민속무용의 탐색과 통합무용으로 세분화 하여 우리춤과 무용 감상법, 타 예술 장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무용창작영역에서는 3-4학년군과 동일하나 작품 구성 영역을 추가하여 작품을 구성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민속무용으로는 강강술래 놀이 춤, 소고춤, 탈춤으로 구성하여 우리 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중심으로 10차시로 구성되었으며, 외국 민속무용의 개념을 알게 하고, 북미대륙, 유럽, 아시아의 문화적 체험을 중점으로 10차시로 구성한다. 이에 예술강사는 학교에 배정된 수업 시수에 맞게 영역별 배분(%)을 잘하여 연간계획서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초등학교 무용 예술 교육과 예술강사의 관계성

1) 학교 및 담당교사와 예술강사

예술교육을 지원 받은 학교는 무용 교사가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들어주려는 경우도 있는 반면, 학교 시스템을 변동 할 수 없으니 강사에게 무조건 맞춰서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학교도 있다. 본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면 10년간의 무용 예술 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수의 학교들 중에 가장 열심히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던 곳은 예술강사에 대한 대처와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학교였다. 소통과 배움의 장인 학교는 사람과 사람이라는 관계중심의 장소라는 특성으로 인해 개개인의 언행과 처우에 민감해 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학교는 문화예술교육의 환경,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문화예술교육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지역의 A학교는 1-6학년 학생의 수가 약 60명 정도인 소규모 학교였다. 무용실이나 강당 등의 체육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 방문을 통해 장소에 대한 문제를 오랜 시간동안 담당 교사와 협의하여야만 했다. 남는 교실은 없었고, 시설도 낙후되었기에 방법은 교실에서 책상을 뒤로 밀로 교실 바닥에서 무용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어서 학생들은 앉기를 꺼려했지만, 담임 교사들과 예술강사의 노력으로 수업 전 청소는 필수였다. 때로는 넓은 공간을 요하는 내용에서 운동장에 나가 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위험한 행동과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당부를 계속해서 말해야만 했다. 열악한 수업 재료 때문에 리본 리듬 체조 수업의 경우 나무 젓가락과 선물 포장용 리본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도화지를 오려 고무줄을 연결하여 색칠을 하고 완성된 개성 있는 탈을 만들어 탈춤을 추기도 하였다. 하지만 담당 교사와 학교의 적극적인 처우와 강사의 말을 귀담아 들어 주려는 태도에 학교와 학생과의 유대감과 신뢰도는 높아졌고, 다음년도 재배치 대상 학교에 망설임 없이 다시 A학교를 선정할 만큼 예술강사의 만족도와 성취감은 매우 높았다.

예술교육에 있어 담당교사는 학교와 예술강사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가 원하는 부분과 예술강사와의 관계 사이에서 정리와 방법을 조율하고, 예술강사의 출강관리와 학교예술교육 신청을 결정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기도 한다. 예술강사는 출강 전 사전방문을 통하여 담당교사를 만나 시간과 연간계획서를 수립하고, 교육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기자재, 재료 등을 전달 받고, 학교 장과 면담의 시간을 갖게도 한다. 저마다 다른 학교의 성향과 특성, 주의사항 등이 존재하기에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학교와 예술강사는 최대한 맞춰가려 노력한다. 하지만 담당교사의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해당 교과목의 학년별 수업에 세부사항을 전부 관여하지 않는다. 각 학년의 연구부장 교사와 또 다시 만남과 의견 조율을 통해 수업 내용 전반이 수정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A 예술강사의 경험을 토대로 구성된 예문이다.

지금은 폐지된 예술강사와 학교에 대한 평가 제도가 있었던 때이다. 4년째 같은 학교에 출강하며 무용수업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항상 높은 평가 점수를 유지하던 A 예술강사는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 해 담당 교사가 바뀌면서 교사 평가의 문항에서 실수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담당 교사가 교육연수 등의 직무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한 번도 무용 수업에 참관해 본 적 없는 일반 교사에게 설문지를 대신 맡기게 되었고 강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일반 교사는 단순한 설문지인줄 알고 쉽게 모든 문항에 중간 점수로 체크를 하여 넘겼고, 당연히

A강사는 낮은 평가점수로 인해 재평가를 받게 되어 전문 교수진과 인근 학교 교장의 참관으로 공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학교장과 교감선생님은 항상 A강사의 무용 수업의 질을 높이 평가하던 입장이었기에 대단히 미안하다며 사과를 거듭 하였고, 재평가 방문 전문가들의 수업에 대한 칭찬과 안타까운 격려로 인해 오해는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A강사의 의욕과 만족도는 떨어져갔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와 사명감은 낮아졌다. 결국 다음 해 재배치 신청은 못하게 되었으며, 예술강사로서의 좌절감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그 외 작은 에피소드로는 담당교사의 출강승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달로 급여가 이월되는 경우도 있으며, 출강승인을 직접 해달라는 담당교사도 있다. 이처럼 무용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교와 담당교사의 문제로 예술강사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매우 직접적이다. 학교는 무용 수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의 예술제나 발표회, 운동회 등의 명목으로 수업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경도 있다. 하지만 학교와의 유대관계나 상황을 항상 이해하려하는 입장인 예술강사들은 적절하게 시간을 잘 배분을 하여 무용 교과 내에서 할 수 있는 요소들로 행사를 준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예술강사의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 무용수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경우도 있다. 더 이상 무용 교과 수업을 나가지 않던 학교에서 예술강사의 자질과 수업의 질을 높이 평가하여, 학교 선정이 되지 않아 출강하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무용 수업을 개설하여 예술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난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강요나 부탁은 서로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지만 학교 및 담당 교사와의 신뢰와 유대관계, 사전 조율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대부분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질의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2) 담임교사와 예술강사

무용수업의 연간계획과 교수방법을 대부분 예술강사가 설정하고 진행한다. 하지만 담임교사와 예술강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대효과와 수업의 내용의 질적 향상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교육과정안이 추구하는 타 교과와의 연계 수업이 원활하게 되며, 타 예술분야와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A예술강사는 수업 도중 담임교사의 말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연간계획서에 제시되어있던 차시에 해당되는 차시였던 '단어 카드'를 가지고 몸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던 수업이었고, 학기 초에 담당 교사와 담당 교사들에게 전달된 사항이었다.

물론 수업 제목만 가지고 내용을 전부 알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창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다른 내용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유는 담임선생님이 공개 수업 때 비슷한 내용으로 할 예정이며 다음 주에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아이들이 접했을 경우 호응도나 관심도가 떨어짐을 의식해서 한 말이었다. 하지만 수업 도중에 갑자기 내용을 바꾸기는 힘든 상황임을 알려드리고, 기질을 발휘해 다른 방식의 수업 방법을 제안 하였다.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발전시켜 공개 수업 때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예술강사의 대응에 다행히 담임교사는 수고를 해주었고, 공개 수업이 아주 잘 진행되어 만족스럽다는 담임교사의 말에 예술강사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한다.

매 수업의 내용을 담임교사와 협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용 교과만 특별하게 담임 교사가 따로 시간을 할애하여 관심을 둘 수 도 없고,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 숙지와 조금의 관심은 필요하다고 본다.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아이들의 연계수업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 지에 대한 이해와 기대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나비가 되어’이라는 주제의 수업에 전 차시 수업에 담임교사는 나비의 탄생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아이들에게 감상하게 하였고, 미리 경험한 내용으로 진행된 수업은 원활하고, 학습효과가 높아짐을 직접 경험한 경우도 있다. 또 외국 민속무용 수업 중 동유럽의 춤인 ‘타타로 치카(펭귄 춤)’를 수업 내용으로 하는 경우 러시아의 문화와 세계지도에서의 위치, 지리적 요건, 사회 환경, 풍습 등 그리고 펭귄의 특성 등의 선행 학습을 통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경우도 있다.

각 반의 담임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 예술강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예술강사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거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서 자리를 피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통제에 문제가 생길시 수업에 차질이 생기고 힘이 드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가끔은 개구쟁이, 분노에 차서 무용실을 발로 차고, 친구들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미리 담임교사와 협의 하에 몇 번의 주의와 기회를 주고 교실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3) 학습자와 예술강사

여느 수업과 마찬가지로 무용 수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학습자이다. 학습자 대상의 학년 군에 따라 내용과 교수법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또한 같은 학교 환경과 조건 속에서 동일한 학습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도 각 반별 분위기와 학습 태도, 특성, 학습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학습자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예술강사의 자세와 수업 방식은 첫 수업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신체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무용 수업을 놀이로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도 한다. 하지만 학습 방법에 있어 신체 놀이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술강사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만들어 두고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한다. 학생들은 직접 신체를 움직이며 표현해야하기에 다소 산만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예술강사의 정확한 설명이 없이는 스스로 깨우치며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른다. 학습자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자료의 활용과 접목은 수업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며, 명확한 피드백과 조언은 학생들이 무용 수업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필수요건이 된다.

무용 수업은 신체의 다양한 움직임의 탐색하고 활용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창의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기대 이상의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간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쓰기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나아가 신체 표현까지 발전시켜 직접 체험 활동이 직접적인 교수-방법이 되어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체육 활동과 병행한 학과 연계수업을 지향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학생들은 동료 친구들 간의 관계수업(모둠 활동)을 통하여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되고 협동심과 발표력, 리더쉽, 창의력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의 예로 ‘움직임 숫자 만들기’라는 수업 내용에서 무용 강사는 수학의 연산과 신체 표현이라는 연계 방법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모둠을 지어 게임의 형태로 빨리 연산을 하여 신체를 숫자 모양을 만들어 정답을 표현하게 하면, 학생들은 어려움 없이 즐겁게 문제를 풀어나간다. 물론 예술강사는 학년에 맞는 연산 문제를 제시해 주어야한다.

중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강사와 교사의 구분을 짓고, 수업 참여도와 태도에 있어 차별을 두어 강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아직 어린 연령대의 초등학생의 경우는 수업의 재미와 흥미가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적다. 다만 신체로 함께 움직이며 진행 하는 수업인 만큼 친밀감이 높아져 다가와껴안고, 친근감의 표시로 손을 잡거나, 신체 일부분을 만지기, 어리광 부리기, 뽀뽀하기 등 난감한 때가 발생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본 연구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술강사는 무용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인식 효과로써 질서와 규칙은 지키면서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신체를 발달시키고,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 자아 존중감, 행복감, 정서지능, 사회성, 창의성, 자기표현력 등을 길러주는 안내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야한다고 생각된다.

3.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교는 무용교육에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한다.

물론 완벽한 시설과 투자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공간, 재료, 시설 등 갖춰 있지 않는 환경에서 무용예술 수업의 시수만 많이 지원 받기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단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 교과수업으로써만이 아닌 무용예술문화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기자재(오디오, 칠판 등), 컴퓨터와 tv모니터 활용(시청각 자료), 무용 수업에 필요한 재료(부채, 소고, 리듬 체조 리본, 후프, 공 등)들의 지원을 예술강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와 예술강사와의 협력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사업의 목적 중 하나인 예술강사와 교사와의 협력 수업의 활성화인데, 이를 위해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흥원의 지속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워크숍과 교육연수에 교사와 예술강사의 지속적인 참여와 공유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지금도 행해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담당교사와 예술강사 사이의 협력 수업의 유형에 따라 한 차시 내에서 예술강사와 담당교사가 어떤 비중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가가 달라져야한다. 예술강사 주도형, 공동 주도형, 담당 교사 주도형에 따른 유형별 맞춤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민속춤(우리나라, 외국)의 경우는 예술강사 주도형으로 하고, 예술통합 수업과 감상수업은 다양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주도형으로 한다. 학교 상황과 협력 관계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가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학습자는 매년 무용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교육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사교육이나 시간적, 경제적 투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자신이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가 성인 되었을 때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평생 학습이 되는 개념으로 인지되어 문화적 삶의 질의 확장을 자연스럽게 연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

네 번째, 예술강사는 여러 학교를 출강하며, 한 학교 내에서만 상주하여 학생들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예술강사의 예술적 전문성과 감수성은 높을 수 있으나 교육기법, 학생들의 성향 파악, 학생 관리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술적 역량을 교육과정 내에 전부 접목시키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해당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한 교육 방법에 대한 매뉴얼, 지도안 등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또한 예술강사들이 주체적으로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교육이 가지는 문제점과 성공 수업 사례 등의 지식

과 정보를 공유하는 발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arte.or.kr/index.do>
- 초등학교 무용교수- 학습자료(2011, 2014)